



“졸업장도 따야하고 대학도 가야하고”

□_songsmith | 감염인/가명

남자를 처음 만나본 건 약 3년 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다. 남자를 만나기엔 아직 이르다는 걸 알았지만, 그 때 당시엔 많은 호기심이 나를 자극했다. 처음 만난 남자로 인해, 관계를 진지코 한 남자와의 만남에 서서히 익숙해져가고 있었다. 그렇게 난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이 되어 버렸다. 사랑을 할 수 없지만,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흠뻑 취해버렸던 건지도 모르겠다.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오고 갔고, 조금씩 난 그런 만남에 지겨워지기 시작했다.

조금씩 지겨워지기 시작한 무렵, 내 인생을 바꿔버린 만큼 커다란 일이 연속해서 터져버렸다. 첫 번째는 ‘살인’이었다.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줄 알았던 ‘살인’이라는 죄는, 아주 쉽게, 나와 내 친구들에게 다가왔다. 부친에서 일어난 초등생 2명이 살인되었다는 사건을 중학교 3학년짜리가 혼자 다 저지른 일이었다. 몇 시간도 채 안 돼서 난 담당 형사들을 만나게 되었다. 그 때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라는 걸 알아 보았다. 형사들은 나에게 주요하게 질문을 했다. 한 달 전에 뭘 했는지, 도저히 기억이 안 나 버리가야겠다.

는 꼬리표였다. 그렇게 씩씩한 두 달이 지난 후 형사들이 진으로 체포영장을 들고 찾아왔다.

그렇게 해서 옥치장이라는 곳을 처음 가보게 되었다. 물론 가게 된 이유- 내가 지시된 다른 죄 때문이었다. 난 하루도 빠짐없이 조사를 받으러 나갔다.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내 죄 때문에 조사받으러 가나보다 생각했겠지만 아니었다. 난 어김없이 밤 9시가 되면 불려 나갔고, 장시간의 조사를 받았다. 새벽에 끝나는 건 기분이었고, 이질에 낄날 때도 있었다. 그 때까지 뭘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. 그저 앉아있었고, 그저 듣기만 했다. 형사는 나에게 솔직히 말하라비 화도 냈고, 조용히 타이트하기도 했다. 난 그저 듣기만 했다.

그리고 어느 날, 대질신문이라며 나와 택시 기사를 대면시켰다. 그 여기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범인이라며 말하고 있었다. 어이가 없었다. 내가 미치면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. ‘정말 내가 했을까 하는 이상한 생각도 했다.

결국은 끝끝내 버티지 못하고 자백을 해버리고 말았다. 하지만 난 진실을 인제가 밝혀진다는 말을 버릿손에 서 맞지 않고 있었다.

부천초등생 살인용의자로 의심 받아

조사가 끝난후에도 헛을 수 없었던 건 살인용의자라

결국, 극적이게도(?) 구치소로 이송돼야 하는 그 날, 살인혐의가 풀렸다. 사건 당일 내가 컴퓨터를 썼던 흔적이



난 지금 이대로 행복하다.
 더 욕심내고 싶지도 않고, 덜하고 싶지도 않다.
 그냥 지금 이 좋은 느낌 그대로, 내 삶을 살아가고 싶다.
 일으켜 세워 줄 힘이 너무나도 많다.
 그동안으로 졸업장도 받아 하고, 졸업 공부도 해야 하고, 대학교도 들어가야 한다.
 그러기 위해 간대 의지, 내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다.
 아직 1년도 못 살아본 내 인생은, 자승보승주는 없었지만
 행복하게 몇지간 내 꿈을 이루는 그 날까지 그럴 바랄아가고 싶다.
 아, 내가 아직고있는 병은 잊어버릴 것이다. 물론 지금도 병로 친 병은 안 쓰지만, 쓰여왔던, 항상 행복한 삶을 위해!

나왔다. 그리고 구치소로 이송되었다. 생활은 그냥 그지
 그랬다. 직업을 한 김치 이랬든 그렇게 내 구치소 생활은
 권이 났고 2거원간의 구치소 생활 끝에 '서울권부심사
 원'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으러 이송되었다. 그
 리고 그 곳에서 피를 뽑았다. 뭐 그냥 구치소 예명집중 하
 나?' 하고 가볍게 생각했다.

에이즈로 조기 출소

재판을 일주일 남겨놓고, 난 갑작스레 피부병이라는
 큰 병에 혼자 있게 되었다. 구치소에서부터 있었던 나의
 피부병 때문이라 생각했다.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아파가
 날 터리러 왔고, 난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'사회' 라는 병
 을 3개월 만에 보게 되었다.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궁금
 했지만 기쁨을 안겨주기에 바빴다.

그리고 친구들과 암비를 통해 알게 되었다. 에이즈 양
 성반응 때문에 조기에 나온 거라고, 주위에서 '아닐 거
 야' 라는 말만 들렸다. 1시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에이즈
 에 관한 정보를 찾아냈고, 초기증상에 대한 정보를 얻었
 다. 나와 똑같이 맞아떨어졌지만, 그냥 아닐 거라 믿고 한
 달을 아무 생각 없이 지냈다.

한 달이 지나, 보건의소에서 엄마와 함께 와보라는 연락
 이 왔다. 아닐 거라는 생각과 비람을 갖고, 보건의소에 갔지

만 내 희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, 양성 판정이라는 확답
 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.

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님'렇지 않았다. 그저 영상과 똑
 같았고, 친'몸들에게 얘기했을 때도 별 반응이 없었다. 문
 뜰 기쁨 내가 이 병에 걸렸단 생각에 죽고 싶은 만큼 싫었
 고, 화도 났다. 하지만 그리 오래가진 않았다. 그리고 11
 월, 어이없게도 난 친했던, 소중한 친구 셋을 잃었다.
 이 병 때문은 아니었다.

그렇게 올해 6월까지 난 그 집에서 지냈다. 누군가를
 만난 식도 없었고, 전화기는 갖고만 있었을뿐, 전화용 데
 드 전화할 데도 없었다. 그냥 혼자 지냈다. 혼자 지내니,
 고민도 없었고, 감정의 변화도 없었다. 그러다 다시 내 병
 을 깨달았다. 그래서 난 다시 리브포원을 찾았고, 유연치
 않게 정보공지를 읽었다. 친구가 없던 내게, 희망이 없던
 내게, 정보는 정말 나가고 싶었던 자리였다. '너가면 정
 보를 얻을 수 있을까, 친구를 얻을 수 있을까, 희망을 얻
 을 수 있을까?' 이런 생각으로 며칠간 고민고민하다 결
 국은 나가기로 결심했고, 그렇게 songsmith 라는 빅더위
 으로 정보에 참석하게 되었다.

그 때 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.
 난 시험을 치렀고, 마침내 그렇게 원하던 중학교 졸업장
 을 받을 수 있었다.